

국립중앙도서관본 <김상서전>의 자료적 가치

정 준 식*

차 례

- | | |
|--------------------|-------------------------|
| I. 서론 | III. 국중본 <김상서전>의 후대적 수용 |
| II. 국중본 <김상서전>의 특징 | IV. 국중본 <김상서전>의 자료적 가치 |
| 1. <김희경전>의 통합 줄거리 | V. 결론 |
| 2. 국중본 <김상서전>의 특징 | |

I. 서론

국립중앙도서관본 <김상서전>¹⁾은 여성영웅소설의 일종이다. 필자가 확인한 <김상서전>은 2종으로 국중본 외에 성균관대 도서관에 1종이 더 있다.²⁾ 그리고 동일 표제의 작품이 북한에도 4종이나 전하고 있어서,³⁾ 이것까지 합치면 모두 6종이다. 국중본 <김상서전>은 여성영웅소설로 널리 알려진 <김희경전>의 이본이다. <김희경전>은 후대의 전승 과정에서 <김상서전>, <김희경전>, <금환기봉>, <장씨효행록>, <여중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하 ‘국중본 <김상서전>’으로 약칭한다.

2) 이하 ‘성대본 <김상서전>’으로 약칭한다.

3)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06-107쪽.

호걸>, <여자충효록>, <쌍문충효록>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다. 그런데 30여 종에 이르는 이본 가운데 표제가 ‘김희경전’으로 된 것이 18종에 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를 이본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김희경전>은 여성영웅소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였고,⁴⁾ 이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찍이 임재해가 한 차례 작품론을 펼친 바 있지만,⁵⁾ 후대의 축약본이라 할 수 있는 활자본 1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논의 결과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김희경전>의 실체는 최근에 이루어진 김만은의 논의에⁶⁾ 힘입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김희경전>의 이본 14종을 꼼꼼히 대조한 뒤 이들의 변이과정을 독자층의 기대지평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김희경전>은 애초에 남성독자의 기대지평을 강하게 반영한 작품이었는데, 후대로 갈수록 차츰 여성독자의 기대지평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모되었다고 한다.⁷⁾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이러한 주장이 이본의 계통도를 명확히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도대체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최고본은 무엇이고 몇 가지 계열로 분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이를 보인 계열은 무엇인지, 마땅히 이에 대한 해명이 전제되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김만은의 연구는 후속 연구자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준 논의였던 셈이다.

4) 일일이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자들이 여성영웅소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희경전>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예외 없이 이본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닐 수 없는 후대의 활자본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연구자들이 대상으로 삼은 활자본은 <김희경전>, <여중호걸>, <여자충효록> 등이다.

5) 임재해, 「<김희경전>에서 문제된 고난과 만남」, 『영남어문학』 제6집, 영남어문학회, 1979, 111-146쪽.

6)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5, 1-69쪽.

7) 김만은, 앞의 논문, 22-55쪽.

이상의 성과로 볼 때, <김희경전>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김희경전>의 이본이 30여 종에 이른다는 사실 외에도 이 작품이 활자본 시대에 가장 많이 읽힌 여성영웅소설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⁸⁾ 그런데 <김희경전>은 필사본과 활자본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원본의 모습을 간직한 필사본을 외면한 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활자본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김희경전>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마땅히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김희경전>의 이본 전개과정에서 매우 비중이 높은 국중본 <김상서전>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물론 필사본 이본 중에는 국중본 <김상서전> 외에도 완본과 결본의 이본이 여럿 있다. 그런데도 굳이 국중본 <김상서전>을 택한 원인은 이 이본이 <김희경전>의 전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중본 <김상서전>을 전대 및 후대의 이본들과 면밀히 대비하여, 이 작품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은 향후 이루어질 <김희경전>의 계통 연구 및 본격적인 작품론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국중본 <김상서전>의 특징

국중본 <김상서전>은 4卷 4冊의 국문 필사본으로 총 143장의 분량인데 필사연도와 필사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작품은 한 면이 10-11행,

8) 활자본으로 출간된 여성영웅소설 중에는 <이대봉전>과 <김희경전>이 가장 많이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대봉전>이 19회로 가장 많은 출간 횟수를 보이고, <김희경전>이 11회로 그 뒤를 잇고 있기 때문이다. 활자본으로 10회 이상 출간된 여성영웅소설은 <이대봉전>과 <김희경전>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107쪽.

한 행이 34-37자 내외이며, 글자 수로는 대략 90000여 자에 이른다. 이 정도 분량이면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꽤나 긴 편이다. 우리가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여성영웅소설 중에는 이처럼 장편의 분량을 지닌 작품이 여럿 있다. 최근에 소개된 <부장양문록>⁹⁾과 함께 <하진양문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때문에 여성영웅소설에서 이들 장편이 지닌 형식적 특징과 미학적 기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희경전>의 이본은 약 30여 종이 소개되어 있는데,¹⁰⁾ 대체로 완본보다는 결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완본 10여종 가운데 장편의 분량을 지닌 이본 5종이 북한에 소장되어 있어서 연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아무튼 <김희경전>의 이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본 5종을 모두 입수하여 국내본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1. <김희경전>의 통합 줄거리

국중본 <김상서전>과 동일한 서사원리를 보이는 이본으로는 장서각본 <금환기봉>, 단국대본 <금환기봉>, 한중연본 <장씨효행록> 등이 있다. 이들 중 국중본과 장서각본만 완본이고 다른 두 종은 결본이다. 장서각본 <금환기봉>은 국중본 <김상서전>을 모본으로 삼은 것이고, 단국대본 <금환기봉>은 장서각본 <금환기봉>을 모본으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은 이들과 필치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4종의 이본 가운데 국중본 <김상서전>이 내용이 충실할 뿐 아니라 가장 이른 시기의 이본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을 ‘국중본 계열’로 지칭하기로 한다. 한편, 국중본 계열과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면서 그

9) <부장양문록>은 최근 정병설 교수가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작품이다. 이에 관해서는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0, 207-223쪽.

10)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06-108쪽.

들 나름의 동일한 서사원리를 지닌 이본으로는 정명기본 <김희경전 권지이>와 <김희경전 중하>, 김동옥본 <김희경전 권지일>과 <김희경전 권지초>, 김동옥본 <김희경전 권지이>와 <이>, 김동옥본 <김희경전 제삼> 등이 있다.¹¹⁾ 아쉽게도 이들은 모두 결본인데 정명기본 두 종이 가장 많은 서사내용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을 ‘정명기본 계열’로 지칭하기로 한다.¹²⁾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필사본 이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김희경전>의 통합 줄거리를 주요 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³⁾

1. 김정 부부가 자식이 없어 걱정하다가 기자치성 후 태몽을 얻고 희경을 낳는다
2. 김희경이 경성 외숙댁으로 가다가 형초 객점에서 장설빙을 보고 흠모한다
3. 장자영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태몽을 얻고 설빙을 낳는다
4. 장설빙의 모친은 병으로 일찍 죽고, 부친은 소인의 참소로 복해에 유배된다

11) 여기에 소개된 정명기본과 김동옥본은 모두 표제가 <김희경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표제는 생략하고 권수만 밝히기로 한다. 즉 정명기본 <김희경전 중하>를 정명기본 <중하>로, 김동옥본 <김희경전 권지이>를 김동옥본 <권지이>로 축약해서 사용할 것이다.

12) 물론 <김희경전>의 이본을 두 계열로만 나눌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두 계열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경전>의 이본 계통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본을 대상으로 한 정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국중본 계열과 정명기본 계열이 <김희경전>의 이본 전개과정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두 계열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13) 여기에 제시된 단락은 필자가 수집한 21종의 이본을 면밀히 대조하여 다수의 작품에 수용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출된 것으로써 서사전개상 꼭 필요한 단락이다. 때문에 만약 개별 이본에 따라 이들 단락 중 일부가 수용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해당 단락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단락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빈도수가 많은 내용을 기본 줄거리로 제시하고 빈도수가 적은 내용은 괄호 안에 함께 제시했다.

5. 장설빙이 탁주 외숙택으로 가다가 형초 객점에서 회경을 보고 흠모한다
6. 설빙의 시비 영춘의 주선으로 김회경과 장설빙이 가연을 맺고 신물을 교환한다
7. 장설빙이 회경과 이별한 뒤 남장하고 탁주로 갔으나 외숙은 이미 죽었고 외숙모는 조카를 따라간다
8. 장설빙이 부친을 만나기 위해 적소인 북해로 갔는데 부친이 이미 작고하였으므로 고향으로 시신을 모셔와 선산에 안장하고 삼년상을 지낸다
9. 장설빙이 김회경을 찾다가 실패하고 유모·시비와 함께 강물에 투신한다
10. 장설빙이 전 참정 이영에게 구출되어 그 집에 머물다가 그의 딸과 혼약한다
11. 김회경이 장설빙과 이별한 뒤 파과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설빙 만난 사연을 고하고 설빙을 찾아 탁주로 갔으나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상사병이 든다
12. 김회경이 다시 장설빙을 찾아 북해로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가의 바위에 새겨진 장설빙의 유서를 발견하고 제를 지낸다
13. 김회경이 결혼과 과거응시를 위해 경성 외숙택으로 간다
14. 김회경이 외숙 석태후의 주선으로 최승상의 생일잔치에 여장하고 가서 거문고를 타며 최소저의 자색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한다
15. 석태후와 최승상의 주선으로 김회경과 최소저가 결혼한다
16. 김회경과 장설빙이 과거에 응시하여 함께 장원으로 뽑혔는데, 설빙이 회경에게 자신을 장수정이라 속여 말하고 장설빙은 자신의 누이동생이라고 한다
17. 장설빙이 부친을 신원하고 부모의 영위를 모셔오면서 이참정택으로 가니 참정이 이미 작고하였으므로 후일에 참정부인과 이소저를 모셔가겠다고 약속하고 경성으로 돌아온다
18. 김회경이 부인 최씨와 함께 장설빙을 위해 제를 지내자, 이를 본 장설빙이 유신군자라며 감탄하지만 이미 김회경이 결혼했음을 꺼려 남장생활을 계속하기로 한다
19. 장설빙이 부친의 시신 운구를 도와 준 북해 노인 소참정을 신원

- 하고 그의 부인을 경성으로 모셔와 부모처럼 섬긴다
20. 장설빙이 연왕의 태부가 되어 사제의 도로 성심껏 가르치는데 연왕이 스승을 보고 몰래 도망가자 장설빙이 연왕을 잡아들여 매를 치며 엄히 꾸짖는다
 21. 나라에 일이 없어 태평한 때에 한 사람이 장설빙에게 나타나 보검과 서책을 주고 가자 장설빙이 틈나는 대로 병서와 무예를 익힌다
 22. 국구 유림이 위국 왕으로 간 뒤 한 번도 입조하지 않자 천자가 죄를 묻기 위해 사신을 보냈는데, 위국 왕이 사신을 죽이고 형국(남경국) 왕과 합세하여 반란을 도모한다
 23. 장설빙이 반대하는 대신들을 꾸짖고 김희경과 함께 자원출정하기를 청하니 천자가 장설빙을 대원수(수륙병마도총독)로, 김희경을 부원수(위도안찰사)로 삼아 출정하게 한다
 24. 김희경(장설빙)이 위국 왕과 싸우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장설빙(김희경)이 필마단기로 달려가 김희경(장설빙)을 구출한다
 25. 장설빙과 김희경이 합세하여 위국과 형국(남경국)의 왕을 죽이고 양국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반란을 평정한다
 26. 천자가 장설빙과 김희경의 전공에 보답하기 위해 장설빙을 청주후에 봉하고 김희경을 하랍후에 봉한다
 27. 천자가 장설빙과 김희경을 부마로 간택하여 장설빙과 애월공주, 김희경과 영월공주를 결혼시키려 한다
 28. 장설빙이 천자에게 상소하여 자신의 남장 사실을 실토했다 천자가 태학사의 직위는 그대로 두고 대사마의 직위는 거둔다
 29. 김희경이 천자에게 상소하여 장설빙과 혼약이 있었음을 말하고 설빙에게 편지하여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요구한다
 30. 천자의 주혼으로 김희경과 장설빙·영월공주가 결혼한다
 31. 김영의 생신날 천자가 교지를 내려 삼부인(최소저, 장설빙, 영월공주)의 차례를 정한다
 32. 삼부인이 상활루에 모여 지난 일을 담소하며 시를 지어 즐기는데 김희경이 나타나 고하를 평론하다가 삼부인의 질책을 받는다
 33. 장설빙이 이참정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 종적을 탐지하니 참정부인은 이미 작고하고 이소저는 정처 없이 집을 나갔다고 한다

34. 이소저가 참정부인의 삼년상을 마친 후 참정부인의 유서를 금낭에 숨기고 남장을 한 채 장설빙을 찾기 위해 경성으로 간다
35. 이소저가 경성에 가서 설빙의 종적을 탐지하니, 설빙이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에 공을 세운 뒤 남장 사실을 밝히고 부마도위 김희경의 상원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36. 이소저가 도로에서 방황하다가 퇴궐하던 김희경을 만나 함께 부마궁으로 가서 김희경의 배려로 후원 서당에서 지내는데, 이때 이소저는 남장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을 ‘이위’라고 속여 말한다
37. 하루는 이소저가 장설빙의 통곡 소리를 듣고 연유를 물으니, 참정부인의 죽음과 이소저의 종적을 알 수 없어 슬피 운다고 하자, 이소저가 장설빙의 신의에 탄복한다
38. 이소저가 김희경과 함께 종남산으로 봄놀이를 갔다가 돌아와서 금낭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종적이 탄로될까 염려하여 몰래 도망한다
39. 부마궁을 나온 이소저가 산중에서 밤을 지내다가 꿈에 남두노인 성으로부터 부적과 환약을 얻고 죽은 사람을 살리라는 지시를 받는다
40. 장설빙이 후원 서당에서 금낭을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 있던 이참정 부인의 유서를 통해 부마궁 서당에 거처하던 이위가 이참정의 딸(이소저)임을 짐작하고 몰래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 한다
41. 소참정 부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위중해지자 장설빙이 급히 가서 구하려 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여 소참정 부인은 죽게 되고 장설빙은 슬피 통곡한다.
42. 산을 내려온 이소저가 곡소리 나는 곳을 찾아갔다가 갑자기 죽은 소참정 부인에게 부적을 붙이고 환약을 먹여 살려낸다
43. 이소저가 소참정 부인 및 장설빙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참정부인과 모녀지정을, 장설빙과 자매지정을 맺는다
44. 장설빙이 이소저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사람을 시켜 이참정 부부의 영위를 경성으로 모셔오게 하여 사당을 세워준다
45. 하남이 흥흥해지자 김희경이 하남안찰사로 내려가서 민심을 수습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람에 들러 이소저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돌아온다

46. 이소저의 시비 설앵이 장설빙을 찾아가 이소저의 장래를 걱정하자, 영월공주가 천자의 허락을 얻어 김희경과 이소저·애월공주의 결혼을 성사시킨다
47. 김희경이 5부인의 권유로 장설빙의 시비 영춘과 이소저의 시비 설앵을 첩으로 삼는다
48. 김희경이 사직하고 5부인 2첩과 화락한 삶을 누리는데 선동이 장설빙에게 나타나 보검과 서책을 거두어 간다
49.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에 9자 7녀가 태어났는데, 모두 권세가의 자녀들과 결혼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
50. 하루는 김희경과 5부인 2첩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일을 담소하며 지내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일시에 승천한다

위의 줄거리는 필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필사본 이본을 조합하여 나름의 최선본을 구축한 후에 추출한 것이다. <김희경전>은 이본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 이본에 따라 이들 단락 중 일부가 생략되거나 특정 단락의 세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위의 줄거리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김희경전>의 서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즉, 단락 1~15는 김희경과 장설빙의 만남·이별·고난을 다룬 전반부이고, 단락 16~32는 김희경과 장설빙의 입신·영웅적 활약·결혼을 다룬 중반부이며, 단락 33~50은 이소저의 남장 행적을 형상화한 후반부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중본 계열에는 이들을 모두 갖춘 완본이 있음에 비해,¹⁴⁾ 정명기본 계열에는 완본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명기본 계열은 개별 이본에 따라 필사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조합함으로써 나름의 정본을 구축할 수 있다. 즉, 김동욱본 <권지초>와 <권지일>을 통해 전반부의 내용을, 김동욱본 <권지이>와 <이>를 통해 중반부의 내용을, 김동욱본 <제삼>을 통해 후반부의 내용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정명기본 <권지이>와 <중하>는 전반부의 일부 및 중반부와 후반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그 내용이 앞의 김동

14) 국중본 <김상서전>, 장서각본 <금환기봉>이 여기에 해당된다.

육본 5종과 일치된다. 때문에 국중본 <김상서전>의 특징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명기본 계열의 모든 이본과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국중본 <김상서전>의 특징

위의 줄거리에서 국중본 계열과 정명기본 계열이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단락 14·15·16·20·21~25·39·46·49 등이다. 그 차이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특정 내용이 국중본 계열에는 없고 정명기본 계열에만 있는 경우와 국중본 계열의 내용과 정명기본 계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하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국중본 계열에는 없고 정명기본 계열에만 있는 내용은 단락 14·16·20·39·4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락 14는 최승상의 생일잔치에 초대된 김희경이 여악사(女樂師)로 변장하고 거문고를 타면서 최소저의 자색을 엿보는 대목이다. <파진곡>→<옥수후정화>→<예상우의곡>→<남훈곡>→<봉구황곡>으로 이어지는 ‘여장탄금 대목’은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여악사로 변장하고 거문고를 타며 정경패의 자색을 엿보는 대목에서 유래되었다.¹⁵⁾ <구운몽>의 이 대목은 뒷날 많은 소설에 수용되기도 했던바 <김희경전>의 ‘여장탄금 대목’도 <구운몽>의 해당 부분을 변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대목이 정명기본 계열에는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는데¹⁶⁾ 국중본 계

15) 중국소설 중 ‘여장탄금 대목’이 수용된 작품으로는 《太平廣記》 소재 <王維傳>과 재자가인소설 중 <吳江雪>, <空空幻> 등이 있는데, <구운몽>의 ‘여장탄금 대목’은 이들 중 특히 <空空幻>의 해당 대목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구운몽>이 <공공환>의 해당 대목을 그대로 수용했다기보다 중국 재자가인소설에 대한 김만중의 풍부한 독서 경험이 토대가 되어 독자적으로 창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전성운, 「<구운몽>의 창작과 명말 청초 艷情小說」,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65-92쪽;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 소설의 형성과정』, 돌베개, 2005, 113-121쪽 참조.

16) 김동욱본 <권지초>와 <권지일>, 정명기본 <권지이>에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이 필사되지 않은 김동욱본 <권지이>와 <이>, 김

열에는 모두 생략되었다.¹⁷⁾

단락 16은 김희경과 장설빙이 과거에 동반 급제한 것을 계기로 재회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장설빙은 이미 남장한 상태여서 김희경에게 자신을 장설빙의 오라비(장수정)라고 속여 말하는데, 이 내용은 <김희경전>의 모든 이본에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즉 부친이 복해에 유배될 때 왜 따라가지 않았느냐는 김희경의 물음에 장설빙이 거짓으로 변명하는 대목은¹⁸⁾ 정명기본 계열에만 수용되어 있고 국중본 계열에는 모두 생략되었다.

단락 20은 장설빙이 천자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연왕의 스승으로 임명된 후 어린 연왕을 사제지도로 훈육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연왕이 어느 날 장설빙을 보고 피해 도망가자 이를 알게 된 장설빙이 연왕을 잡아들여 매를 치며 질타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 역시 정명기본 계열에는 모두 수용되어 있는데 국중본 계열에는 생략되었다.

단락 39는 부마궁에 기거하던 이참정의 딸(이소저)이 어머니의 유서가 든 금낭을 잃고 신분이 탄로될 것을 우려하여 몰래 부마궁을 빠져나온 뒤 산중에서 어느 노인으로부터 환약과 부적을 얻는 대목이다. 이소저는 뒷날 이 환약과 부적으로 죽은 소참정 부인을 살려냄으로써 지난 날 자신과 정혼했던 장설빙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단

동옥본 <제삼>, 정명기본 <중하>에도 ‘여장탄금 대목’이 수용되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들 이본이 모두 정명기본 계열에 속하기 때문이다.

17) 완본인 국중본 <김상서전>과 장서각본 <금환기봉>에는 생략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비해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은 결본이라서 이 부분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필사된 다른 내용이 대체로 두 이본과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여장탄금 대목’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8) 이 부분의 원문은 상당히 긴 편인데, 처음과 끝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일은 혼 도인이 와 소제를 보고 단명타 흐여 남을 주어 길음을 권흐여…(중략)…춘풍 화안이 변흐여 춘천의 벽일 무광흔지라(김동옥본 <이>, 6a-7a). 동일한 내용이 정명기본 <권지이>, 김동옥본 <권지이>에도 함께 수용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내용은 정명기본 계열에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락은 이소저와 장설빙의 재회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 장치인 셈이다. 이 대목 또한 정명기본 계열에는 모두 수용되어 있는데 국중본 계열에는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에 모두 생략되었다.

단락 46은 이소저의 시비 설앵이 주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희경과 이소저의 혼사를 성사시키는 대목이다. 장설빙과 재회한 후 장설빙의 친가에서 기거하고 있던 이소저는 결혼에 뜻을 두지 않고 계속 혼자 살기를 고집한다. 이를 걱정한 시비 설앵이 장설빙을 찾아가 그 실상을 알리자, 듣고 있던 영월공주가 천자와 시부모의 허락을 얻어 김희경과 이소저의 혼사를 성사시키게 된다. 정명기본 계열에는 이 과정이 명확히 그려져 있는데, 국중본 계열에는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에 모두 생략되었다.

이상의 논의로 우리는 국중본 계열이 정명기본 계열에 비해 곳곳에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명기본 계열이 원본에 가까운 이본임에 비해 국중본 계열은 정명기본 계열을 모본으로 삼으면서 일부 내용을 생략한 이본임을 말해준다. 역으로 국중본 계열에만 있고 정명기본 계열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국중본 계열 중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은 다른 두 이본에는 없는 단락 39·46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중본 계열 내에서도 약간의 이질성을 지닌 이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중연본의 이질적인 부분은 기실 정명기본 계열에는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은 정명기본 계열이 국중본 계열로 전환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이본일 가능성이 높다.¹⁹⁾

19) 고대본 A·B <김희경전>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본이다. 국중본 <김상서전>, 장서각본 <금환기봉>, 단국대본 <금환기봉>이 국중본 계열을 대표하는 이본임에 비해 한중연본 <장씨효행록>과 고대본 A·B <김희경전>은 국중본 계열이 정명기본 계열에서 파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중본 계열의 내용이 정명기본 계열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는 단락 15·21~25·4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락 15는 김희경과 최소저의 결혼과정을 다룬 대목이다. 국중본 계열과 정명기본 계열이 이 대목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앞의 단락 14에서 국중본 계열이 ‘여장탄금 대목’을 생략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국중본 계열에는 여장한 김희경이 최소저 앞에서 거문고로 여러 곡조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원래 이 대목은 김희경의 거문고 연주를 듣고 일일이 평론하던 최소저가 마지막에 연주된 <봉구황곡>을 통해 김희경이 여장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를 듣게 된 최승상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석태후의 집으로 갔다가 김희경을 발견하고는, 전날 거문고 타던 악사(樂師)가 바로 김희경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김희경과 최소저의 결혼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다음 석태후가 최승상에게 청혼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정명기본 계열에는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음에 비해, 국중본 계열에는 이와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즉 국중본 계열에는 김희경이 여악사로 변장은 하되 <남풍시>만 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뿐 앞서의 곡들을 차례로 연주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나아가 국중본 계열에는 최승상이 석태후 부중에 가서 김희경의 정체를 확인하는 장면도 나와 있지 않다. 대신 이 부분은 석태후가 최승상을 찾아가 정중히 청혼하자 최승상이 석태후의 집으로 가서 김희경의 용모와 인품을 직접 확인한 후에 혼인을 승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락 21~25는 원국의 주석지신이 된 장설빙과 김희경이 인접 국가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다. 사실 국중본 계열과 정명기본 계열은 이 군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는 ①장설빙이 보검과 병서를 습득하는 과정, ②출정 당시 장설빙과 김희경의 직위, ③원나라를 침범한 이웃나라의 이름, ④전쟁의 수행과정 등으로 요약된다. ①의 경우, 국중본 계열에는 장설빙이 밤중에 자신의 집 외당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한 유생이 나타나 보검과 병서를 주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정명기본 계열에는 퇴조하던 장설빙이 종로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서 보검과 병서를 전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의 경우, 국중본 계열에는 원국을 침범한 나라가 위국과 남경국으로 소개되어 있음에 비해 정명기본 계열에는 위국과 형국으로 소개되어 있다. ③의 경우, 국중본 계열에는 출정시 장설빙과 김희경의 직위가 ‘대원수’와 ‘부원수’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정명기본 계열에는 장설빙과 김희경의 직위가 ‘대원수 겸 수륙병마도총독’과 ‘부원수 겸 위국안찰사’로 되어 있다. ④의 경우, 국중본 계열에는 위국이 변방을 침범하고 남경국이 황성을 침범함으로써 장설빙과 김희경을 혼란에 빠트린 반면, 정명기본 계열에는 위국과 형국이 변방에서 합심하여 원국을 침범한 것으로 그려놓았다. 이에 따라 국중본 계열에는 장설빙과 김희경이 위국을 평정한 뒤에 황성으로 가서 남경국 군사들을 진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명기본 계열에는 장설빙과 김희경이 변방으로 가서 위국과 형국을 동시에 무찌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중본 계열과 정명기본 계열은 군담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두 계열의 이러한 차이가 작품 해석을 달리 해야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희경전>의 이본이 필사본 단계에서부터 두 계열로 분화된 채 유통되어 왔음을 명확히 확인한 점은 앞으로 <김희경전>의 계통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둘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랑캐의 모반으로 장설빙과 김희경이 자원출정 의사를 밝혔을 때 신하들이 보인 반응에 관한 것이다. 신하들의 반응은 찬성 아니면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 차이는 계열에 따른 차이라기보다 개별 이본에 따른 차이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국중본 계열에서 국중본 <김상서전>과 장서각본 <금환기봉>에는 반대로 나타나는데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에는 찬성으로 나타난

다든가, 정명기본 계열에서 정명기본 <중하>, 김동육본 <권지중>에는 찬성으로 나타나는데 정명기본 <권지이>와 김동육본 <이>에는 반대로 나타나는 점 등이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혼란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필자는 이를, 처음 정명기본 계열의 이본에서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이 마련된 이래 국중본 계열이 정명기본 계열을 수용하면서 이본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단락 49는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 관직, 혼인관계를 나열한 대목이다.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의 자녀는 국중본 계열과 정명기본 계열 모두에 9자 7녀로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딸의 이름, 사위의 이름 및 관직, 아들의 관직 등도 두 계열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유독 아들의 이름만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국중본 계열에는 아들의 이름이 “일기·이기·삼기” 등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 정명기본 계열에는 “구흥·구성·구경” 등으로 되어 있다.²⁰⁾ 이처럼 김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하나의 원칙처럼 두 계열이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 또한 <김희경전>의 계통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의 차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필사본 <김희경전>이 활자본과는 달리 초반부·중반부·후반부를 모두 갖춘 장편의 이본이라는 사실, 필사본 <김희경전>이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로 분화된 채 이원적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 두 계열 중에서 정명기본 계열이 원본의 내용을 충실히 계승한 이본이라는 사실, 국중본 계열은 정명기본 계열을 토대로

20) 유독 아들의 이름에 관해서는 두 계열이 엄격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국중본 계열에 속하는 국중본 <김상서전>, 장서각본 <금환기봉>,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에는 예외 없이 “일기·이기·삼기”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정명기본 계열에 속하는 김동육본 <김희경전 제삼>과 <김희경전 권지하>, 국민대본 <김희경전 권지삼>에는 예외 없이 “구흥·구성·구경”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삼되 특정 대목에서 생략 및 변개를 가한 이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처음 <김희경전>은 정명기본 계열을 중심으로 한동안 전승되어 오다가 국중본 <김상서전>의 출현을 계기로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로 이원화되었으니, 이들이 바로 필사본 시대 <김희경전>의 전승을 주도해간 중심 계열이었던 것이다.

Ⅲ. 국중본 <김상서전>의 후대적 수용

앞서 검토된바 필사본 시대에 <김희경전>은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로 분화된 채 이원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그런데 정명기본 계열에서 파생된 국중본 <김상서전>은 그것대로 독자적인 계열을 이루는 한편, 새로운 계열의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국중본 <김상서전>이 후대의 이본에 수용된 양상을 이 두 가지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중본 <김상서전>이 독자적인 계열을 형성하게 된 과정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김희경전>의 이본 중 국중본 <김상서전>, 장서각본 <금환기봉>, 단국대본 <금환기봉>, 한중연본 <장씨효행록> 등이 국중본 계열에 해당된다. 이들을 면밀히 대조해본 결과 국중본 계열 중 국중본 <김상서전>, 장서각본 <금환기봉>, 단국대본 <금환기봉>은 서로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놓여있음이 확인된다. 즉, 처음 정명기본 계열에서 국중본 <김상서전>이 파생된 후에 장서각본 <금환기봉>이 이를 그대로 베꼈고, 단국대본 <금환기봉>은 장서각본 <금환기봉>을 그대로 베꼈다.²¹⁾ 따라서 국중본 계열은 국중본→장서각본→단국

21) 세 이본은 소소한 자구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작품 전체의 내용은 물론 세부 표현에서도 거의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일일이 원문을 대조할 필요가 없다. 세 이본 모두 필사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소한 자구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들의 선후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단국대본은 장서각본을 그대로 베낀 반면,

대본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은 이들 세 이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은 완질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내막을 알 수 없지만,²²⁾ 필사된 내용은 정명기본 계열보다 국중본 계열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이본이 국중본 <김상서전>과는 별도로 정명기본 계열에서 독자적으로 파생되었을까. 필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앞서 검토된 바,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의 두드러진 차이는 군담 대목과 자식을 소개하는 대목인데,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의 이 대목은 국중본 계열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이 국중본 계열의 다른 이본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매우 지엽적이다. 이렇게 볼 때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은 국중본 <김상서전>을 저본으로 삼되, 정명기본 계열의 이본에서 지엽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생성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중본 <김상서전>이 새로운 계열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우이다. 이 경우 주목되는 작품이 성대본 <김상서전>이다.²³⁾ 성대본 <김상서전>은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는 이본이다. 이 작품의 상권 말미에는 “계유 오월 삼십일 필서 동아 회호”라고 되어 있고, 하권 말미에는 “계유 납월 십칠일 동아는 근서”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계

국중본은 장서각본과 대체로 일치되지만 두 이본에 없는 구절이 군데군데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국중본의 이 구절이 정명기본 계열의 이본에는 공통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국중본은 정명기본 계열에서 파생된 첫 이본이라 할 수 있다.

22)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은 필사시기를 알 수 없고, 전반부 모두와 중반부의 일부가 전하지 않는 결본이다. 이 작품은 원래 8권으로 되어 있었으리라 추정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4권에서 8권까지 총 51장뿐이다. 이 부분은 위국이 모반하자 장설빙과 김희경이 천자에게 자원출정 의사를 밝히는 부분부터 결말까지이다.

23) 성대본 <김상서전>은 필사본이고 상·하 2책으로 되어 있는 완본이다. 상권 66장과 하권 46장을 합해 총 112장이며, 한 면이 12행이고 한 행이 24~28자까지 유동적인데 글자 수로는 대략 70000여 자에 이른다.

유”는 1813년·1873년·1933년 중의 하나일 것인데, 이 작품이 후대의 축약본임을 감안해 볼 때 1873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성대본 <김상서전>은 다른 필사본과 달리 전반부와 중반부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소저의 남장 행적을 형상화한 후반부는 완전히 생략되었다. 이처럼 후반부를 생략한 성대본 <김상서전>이 1873년에 필사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흔히 <김희경전>은 필사본 시대에 장편으로 전승되다가 활자본 시대에 와서야 단편으로 축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대본 <김상서전>은 필사본 시대에 이미 축약된 이본이 존재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준다. 더구나 이 이본이 축약된 첫 이본이 아니라면 축약본의 출현 시기는 이보다 훨씬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 성대본 <김상서전>이 1873년 에 필사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까닭은 이 이본이 국중본 <김상서전>의 내용을 적지 않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성대본 <김상서전>이 출현할 당시에는 국중본 <김상서전>이 하나의 계열을 이룬 채 상당히 널리 유통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대본 <김상서전>이 단순히 국중본 <김상서전>의 내용만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성대본 <김상서전>은 필사본 시대에 두 흐름을 형성했던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의 이본들을 두루 수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⁴⁾

- ① 성대본 <김상서전> 1~41장 : 국중본 <김상서전> 수용
- ② 성대본 <김상서전> 42~46장 : 김동욱본 <김희경전 권지초> 수용
- ③ 성대본 <김상서전> 47~72장 : 정명기본 <김희경전 권지이> 수용

24) 필자는 현재 성대본 <김상서전>의 이본적 가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별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다만 그 논의의 핵심만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용

- ④ 성대본 <김상서전> 73~75장 : 한중연본 <장씨효행록> 수용
- ⑤ 성대본 <김상서전> 76~86장 : 국중본 <김상서전>, 한중연본 <장씨효행록> 수용
- ⑥ 성대본 <김상서전> 87~108장 : 국중본 <김상서전> 수용
- ⑦ 성대본 <김상서전> 109~112장 : 성대본의 독자적인 부분

위의 도식에서 성대본의 생성에 영향을 끼친 이본 가운데 국중본 <김상서전>과 한중연본 <장씨효행록>은 국중본 계열에 속하며, 김동육본 <김희경전 권지이>, 정명기본 <김희경전 권지이>는 정명기본 계열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에 제시된 성대본 <김상서전>의 ①④⑤⑥은 국중본 계열을 모본으로 삼은 것이고, ②③은 정명기본 계열을 모본으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성대본 <김상서전>의 생성에 당시 성행하던 국중본 계열과 정명기본 계열의 여러 이본들이 두루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계열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중본 계열, 그 중에서도 국중본 <김상서전>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성대본 ②에 영향을 끼친 김동육본 <김희경전 권지초>의 경우 두 계열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계열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두 계열 중 어느 한 쪽에 가까운 이본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김동육본 <김희경전 권지초>에 온전히 구비되어 있는 ‘여장탄금 대목’이 정명기본 <김희경전 권지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중본 계열보다는 정명기본 계열에 더 가까운 이본일 것으로 추정될 따름이다.

한편, 성대본 ⑦은 다른 필사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⑦은 장설빙이 김희경에게 이참정의 딸(이소저)을 천거하여 넷째 부인으로 삼게 하고, 이참정의 부인을 경성으로 모셔와 부모처럼 섬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성대본을 제외한 모든 필사본에는 이 부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즉 이참정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그 부인마저 기세하자, 혼

자 남은 이소저는 남장을 하고 정혼자인 장설빙을 찾아 경성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후 이소저의 행적은 작품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후반부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필사본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소저의 남장 행적이 성대본에 와서 의도적으로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성대본이 선행 이본의 내용을 생략한 예는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있다. 즉 희경이 파과(罷科)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목, 희경이 북해에서 돌아오다가 소상강을 지나며 고인의 뉘를 기리는 대목, 전쟁 후의 논공행상 대목, 세 부인이 상활루에 모여 시를 짓고 즐기는데 희경이 나타나서 품평하다가 질책당하는 대목, 희경과 5부인 2첩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의 이름·관직·혼인관계를 소개하는 대목, 장설빙에게 선동이 나타나 보검과 천서를 거두어 가는 대목 등이 성대본에는 모두 생략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생략되더라도 작품 해석이 달라질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이소저의 남장 행적 부분이다. 성대본에 와서 이 부분이 생략되자 작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얼핏 보아서는 장편이 단편으로 줄어든 정도로만 비춰질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성대본은 이소저의 남장 행적을 생략함으로써 당시 성행하던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요컨대 성대본을 계기로 <김희경전>은 남녀의 상호존중과 신의를 강조했던 전대 이본의 주제에서 벗어나 여성의 영웅주의를 부추기는 당대 여성영웅소설의 통속성에 영합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활자본 시대에 간행된 <김희경전> 3종이²⁵⁾ 모두 성대본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명기본 계열에서 파생된 국증본 <김상서전>은 후대의

25) 1914년에 간행된 <여자충효록>, 1917년에 간행된 <김희경전>과 <여중호걸>이 이에 해당된다.

이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한편으로는 장서각본, 단국대본, 한중연본 등을 포괄하는 국중본 계열을 형성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대본 <김상서전>과 활자본으로 간행된 <김희경전>, <여중호걸>, <여자충효록>을 포괄하는 성대본 계열의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때 국중본 <김상서전>은 정명기본 계열→국중본 계열→성대본 계열로 이어지는 <김희경전>의 이본 전개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IV. 국중본 <김상서전>의 자료적 가치

<김희경전>은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특이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작품이 남녀주인공의 영웅적 활약보다 그들의 만남과 결연, 신의와 상호존중을 중요한 문제로 부각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필사본 시대의 <김희경전>은 ‘결연서사’가 ‘영웅서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여성영웅소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성영웅소설은 대부분 결연서사와 영웅서사가 남장모티프를 계기로 긴밀히 맞물려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성영웅소설의 외연을 확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기존의 여성영웅소설 연구자들이 논의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방각본이나 활자본으로 간행된 통속적 여성영웅소설이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필자는 여성영웅소설이 출현 당시부터 통속적 여성영웅소설처럼 도식화되고 정형화된 틀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는다. 적어도 대중적인 독서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주로 필사본으로 전승되면서 통속적 여성영웅소설과는 다른, 나름의 문제의식과 서사구조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본다. 여기서 나름의 문제의식이란 남녀의 신의와 상호존

중에 기반한 일부다처의 화락한 공존을 의미하며, 서사구조상의 특징이 란 영웅담보다 결연담이 위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되는 작품이 바로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 <김희경전> 등이다. 필자는 이들을 ‘장편 여성영웅소설’로 지칭할 수 있다고 본다. 장편 여성영웅소설은 통속적 여성영웅소설과는 형성과정, 구조적 특징, 미학적 기반 등이 다르다고 보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²⁶⁾ 따라서 이들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새로운 형성경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희경전>은 장편 여성영웅소설에 해당된다. 다만 애초에 장편의 분량으로 창작되고 장편으로 유통되었지만, 후대에 이르러 단편으로 줄어든 것이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과는 다른 점이다. 장편이 단편화된 모습은 성대본 <김상서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단편화된 성대본은 다시 활자본 <김희경전>이나 <여중호결>의 저본이 되었다. 결국 정명기본 계열→국중본 계열→성대본 계열로의 전개가 중심축을 이루는 한편,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은 그것대로 줄곧 독자성을 유지해 오기도 했던 것이 <김희경전> 이본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삼아 본장에서는 국중본 <김상서전>의 자료적 가치를 몇 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국중본 계열은 <김희경전>의 이본 중에서는 물론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유일하게 궁중 여인들에게 수용된 소설이다. 사실 국중본 <김상서전>은 <김희경전>이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장편의 분량은 그대로 유지된 채 몇 군데 주목할 만한 생략과 번개만 가해진 이본이다. 생략의 예로는 ‘여장탄금 대목’이, 번개의 예로는 ‘군담 대목’이 가장 주

26) 류준경도 최근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비록 필자와 관점은 다르지만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새로운 형성루트를 찾으려고 한 점은 필자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12, 7쪽.

목된다. 이 중에서 특히 ‘여장탄금 대목’이 생략된 것은 국중본 계열이 정명기본 계열과는 성향이 다른 여성독자들에게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이 경우 주목되는 이본이 장서각본 <금환기봉>이다. 이 작품은 궁중의 낙선재에 소장되어 있었던 만큼, <김희경전>의 이본 중 유일하게 궁중의 여인들이 읽은 이본이다. 원래 사대부가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읽혀지던 정명기본 계열이 국중본 계열로 생략·변개되면서 궁중의 여인들에게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국중본 계열의 생략·변개가 궁중 여인들의 요구나 독서성향에 맞추기 위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외간 남자가 여장하고 규방에 들어가서 직접 규수를 엿본다는 ‘여장탄금 대목’이 궁중 여인들에게는 자칫 심한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그 거부감이 이란 ‘여장탄금 대목’이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성위주의 일방적인 결연이 ‘남아의 풍류’²⁷⁾로 미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성은(聖恩)은 입되 그 마음은 얻지 못한 궁중 여인에게 이 ‘여장탄금 대목’은 낭만적 결연이 아닌 가벼운 장난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김희경전>이 제기한 핵심적 의미가 남녀의 상호존중과 신의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결연인바, 국중본 계열은 정명기본 계열보다 더 완고하게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남성 주도의 결연서사인 ‘여장탄금 대목’을 통째로 생략했던 것이다.

둘째, 국중본 <김상서전>은 성대본 <김상서전>과 함께 <김희경전>의 이본 전개과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본이다. 만약 국중본과 성대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김희경전>의 이본 계보를 실상

27) <김희경전>의 ‘여장탄금 대목’은 <구운몽>의 해당 부분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구운몽>에서 양소유는 정경패의 자색을 보기 위해 여악사(女樂師)로 변장하고 정경패에게 접근하여 여러 거문고 곡조를 타다가 마지막에 <봉구황곡>을 연주함으로써 자신이 남자임을 암시한다. 나중에 정경패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정사도는 양소유를 만난 자리에서 그를 ‘풍류남아’라고 칭찬한다. <김희경전>의 ‘여장탄금 대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 독자, 특히 왕만을 유일한 남성으로 간주하며 살아야 했던 궁중의 여인들에게 양소유나 김희경의 이러한 행동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에 부합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희경전>의 이본에 관한 기왕의 논의가²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통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국중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대본을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명기본계열이 <김희경전>의 초기 모습을 가장 잘 지니고 있는 이본이라면, 국중본 계열은 처음으로 부분적인 변개를 거친 이본이고, 성대본 계열은 국중본 계열을 근간으로 삼되 정명기본계열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취하면서 후반부를 완전히 생략한 이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세 계열 중에서도 국중본 계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바, 국중본 <김상서전>은 항상 그 중심에 놓여 있었다. 즉 국중본 <김상서전>은 국중본 계열의 독자적인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성대본 계열의 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김희경전>이 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셋째, 국중본 <김상서전>을 매개로 해서 이끌어낸 <김희경전>의 이본 전개과정에 관한 본고의 도식은 기존의 <김희경전>에 관한 연구를 근본적으로 반성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는 <김희경전>이 정명기본 계열→국중본 계열→성대본 계열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을 배제한 채 성대본 계열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더욱이 성대본 계열 자체가 후대의 축약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축약과 변개가 심한 활자본 이본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은 점은 심각한 반성을 필요로 한다. <김희경전>이 원래 장편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장편이 축약과 변개를 거쳐 단편으로 줄어든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세 계열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이 전제되어야만 <김희경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28)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5, 6-21쪽.

V. 결론

대개의 경우 고전소설 연구에서는 개별 이본의 독자성과 보편성이 제대로 가려질 때라야만 튼실한 논의의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희경전> 연구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그동안 이 작품에 관한 몇 번의 논의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가장 기본적인 이본의 계통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대의 활자본만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형국이다. 연구자의 자의적인 텍스트 선정으로 시작된 <김희경전> 연구는 결국 본질은 비껴가고 변죽만 울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김희경전>에 대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제자리만 맴돌며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본고는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유독 <김희경전>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던 원인을 궁구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다. <김희경전>은 통속화되기 이전 여성영웅소설의 모습은 물론 <부장양문록>, <하진양문록> 등과 함께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면모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던 것이 정명기본 계열→국중본 계열→성대본 계열로 변모되면서 장편이 단편화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본고의 논의는 <김희경전>의 이본 계통도를 수립하기 위한 예비 작업에 불과하다. 국중본 <김상서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낸 <김희경전>의 이본 전개과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 논의를 통해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본의 계통도를 명확히 세워야만 작품의 형성과정, 구조적·미학적 특징, 장편화의 원리, 후대 소설과의 관련성 등과 같은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김상서전>, 여성영웅소설, 국립중앙도서관본, 성대본, 정명기본, 이본 계통도, 장편의 단편화, 필사본, 활자본

참고문헌

1. 자료

- <김상서전> : 필사본(143장),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김희경전 권지초> : 필사본(69장), 김동욱본, 단국대 도서관 소장
<김희경전 권지일> : 필사본(44장), 김동욱본, 단국대 도서관 소장
<김희경전 권지이> : 필사본(30장), 김동욱본, 단국대 도서관 소장
<김희경전 이> : 필사본(50장), 김동욱본, 단국대 도서관 소장
<김희경전 권지중> : 필사본(48장), 김동욱본, 단국대 도서관 소장
<김희경전 제삼> : 필사본(53장), 김동욱본, 단국대 도서관 소장
<김승서전> : 필사본(112장), 성균관대 도서관 소장본
<금환괴봉> : 필사본(188장), 장서각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김희경전 권지이> : 필사본(52장), 정명기 소장본
<김희경전 中下> : 필사본(66장), 정명기 소장본
<장시효행록>, 필사본(51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2. 논저

-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5, 1-69쪽.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5-18쪽.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107쪽.
임재해, 「<김희경전>에서 문제된 고난과 만남」, 『영남어문학』 제6집, 영남어문학회, 1979, 111-146쪽.
전성운, 「<구운몽>의 창작과 명말 청초 艷情小說」,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65-92쪽.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113-121쪽.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0, 207-223쪽.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06-107쪽.

<Abstract>

Documental Value of the
Kimsangseojeon Edi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ung, Jun-Sik

This thesis was prepared in the course of seeking out the reason why the study of stories about female heroes has been poor,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Kimheekyungjeon*. The *Kimheekyungjeon* shows not only an aspect of a heroine novel before popularization, but also an aspect of a long heroine novel along with *Boojang Yangmoorok* and *Hajin Yangmoonrok*.

Then, it became short as it was changed from the version by professor Jung Myeong-Gee(정명기본 계열) → vers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국중본 계열) → version of Sungkyunkwan University(성대본 계열). The discussion in this thesis is merely preparatory work for building a genealogy of the different versions of the *Kimheekyungjeon*.

As to know whether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the different versions of the *Kimheekyungjeon* deduced focusing on the *Kimsangseojeon* vers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reasonable, it needs to be confirmed fully through follow-up discussions. That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discuss more seriously on the course of the creation of a work, structural and aesthetical features, the principle of becoming a long novel,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novel in the later ages only when the genealogy of a different version has been built clearly.

Key Words : *Kimheekyungjeon*, heroine novel, vers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version of Sungkyunkwan University, version of Jung Myeong-Gee, genealogy of a different version, creation of long novel to short one, manuscript, printed book